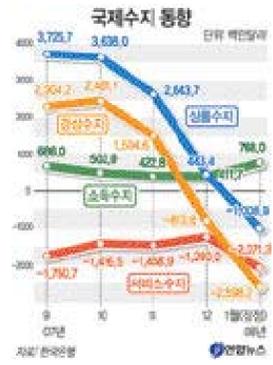


# 1월 경상수지 적자 무려 26억달러



## 고유가·해외여행 급증 탓 11년만에 최대 서비스수지 적자 폭 한달만에 배로 늘어

유가급등의 여파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1월 경상수지가 11년만에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의 8억1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달 연속 적자를 낸 것이며, 적자규모 면에서는 1997년 1월의 31억3천만달러 적자 이후 11년만에 최대의 적자에 해당한다. 비록 유가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가 주요인이지만 외환위기 발발 직전에 경상수지 적자가 누중하던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것은 상품수지가 거의 5년만에 적자로 반전된데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이 15.4%를 나타내는 건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증가율이 31.1%에 달하면서 전월의 4억4천만달러 흑자에서 10억1천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3년 3월(3천만달러 적자) 이후 58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1월의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외환위기 발발 직전인 97년3월의 12억9천

만달러 적자 이후 최대에 해당한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가 감소한 가운데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 적자가 늘면서 적자규모가 전월의 12억4천만달러에서 20억7천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런 적자규모는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에 해당한다. 이밖에 소득수지는 배당금 지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규모가 전월의 4억1천만달러에서 7억7천만달러로 확대됐으며 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4억3천만달러에서 2억9천만달러로 축소됐다. 자본수지는 직접투자수지와 증권투자수지가 순유출을 나타냈으나 해외간 투자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억7천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연합뉴스

## 금융권 건설사 지원 '헛방'? 자율협약 따라 제2금융권 상당수 참여 안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자율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 상당수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321개사 가운데 60개사로 20%에도 못 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이 가입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체 108개사의 35%인 38개사만 참여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1~2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 주도로 협약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자신들이 협약을 체결할 이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F는 지난 25일까지 답변을 받아 29일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율이 예상 외로 저조하자 일단 시행일을 다음 달 말까지 미루고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이같은 참여율이라면 협약을 시행해도 효과가 없다"며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금융권과 하청업체를 비롯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커 자율협약을 추진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은행 수신금리 연 6%대 진입

올해 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시중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대거 취급함으로써 저축성 수신의 평균 금리가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연 6%대로 올라섰다. 대출 금리 역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1월 중반부터 시장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 2월에는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의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6.01%로 전월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1년 2월의 연 6.09% 이후 6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화려한 '봄 패션쇼' 28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광주 신세계 2008 신춘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화려한 봄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중 브랜드 쌀 40% '품종 표시 규정 위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 제품 10개 중 4개는 품종 표시 규정을 위반해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쌀 34개 제품을 수거해 품종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8.2%인 13개 제품이 양곡관리법의 의무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장 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이면 '일반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마트의 '일품 청결미' 제품은 벼의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다. B마트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인 '무농약 우렁이쌀'도 표시규정을 위반해 대형마트의 품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공시지가 광주 6.2%·전남 4% ↑

동구 총장로 옛 나라서적 m당 950만원 최고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m당 130원 최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 기준이 될 광주, 전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6.22%, 4.0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전국 50만 필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상승했으나 광주와 전남의 상승률은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7위와 13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에 못미치지만 광주의 상승률은 6.22%로 지난해 3.72%에 비해 두 배 가량 올랐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진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광주시의 공시 표준지는 8천765 필지이며, 이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구 총장로 2가 51-1번지 EXR의류점(옛 나라서적)으로 m당 지가는 95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광산구 등립동 산 90번지 m당 560원이었다. 전남의 공시 표준지는 6만3천필지이

며, 이중 여수시 교동 275번지 등산용품 판매상이 부지가 8년째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m당 땅값은 450만원이었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2-82번지의 3필지로 m당 130원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매장으로 4년 연속 1위였다. 이 매장의 땅값은 1m당 6천400만원(평당 2억1천150만원)으로 작년보다 7.7% 상승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입야로 1m당 100원이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9일부터 3월31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토지 소유자 세금 부담 '눈덩이'

공시지가 상승 따라 재산세·종부세 등 덩달아 ↑ 오피스텔·상가 등 부동산 세금도 크게 오를 듯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상승률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산정기준이 돼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세금도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아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와 취득, 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 4월부터 승용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

오는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도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작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새 차의 경우 모든 모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에 차이가 없었다. 보험개발원은 4월부터 모든 새 차에 대해 손상성(사고 때 차가 파손되는 정도)과 수리성(수리비)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자기차량 피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가 나도 차량파손이 적고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차는 보험료 부담을 덜지만 그렇지 않은 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새 차는 손상성과 수리성에 대한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모두 똑같이 기준등급(6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출시 후 6개월까지는 유사 차종의 최근 평균 등급을 적용하고 6개월 내에 충돌 테스트를 통해 손상성과 수리성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연합뉴스



## 삼성 입체영상TV '파브 칸느' 세계 첫 출시

삼성전자는 28일 100만 대 1의 명암비에 3D 게임과 영화 등 3D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입체영상 TV인 50인치 3D PDP TV '파브 칸느 450'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이 제품은 3D 게임과 영화 등 3D 콘텐츠를 즐기려면 TV에 3D 콘텐츠를 구동시킬 수 있는 PC를 연결하고 3D 전용 안경을 착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 미국 경제 비관론 확산 전문가들 "국내 증시 신중 접근해야"

국내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국내 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경제 및 증시 전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미국 경제 비관론의 주된 배경은 미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스테그플레이션 징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물가 측면

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WTI 기준)를 넘어서는 초고유가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가격과 철강, 유엔탄,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침체의 구원투수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FRB의 금리인하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특히 금리 동향에 민감한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G이노텍	사무지원 업무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04	062-950-0458
한국쌍용화재	한국쌍용화재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410-1430
코안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특수경비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2	02-2662-8351
한나라당광주광역시당	[한나라당광주광역시당]사무/사무보조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528-0205
한국이엔씨	토목환경기사, 캐드기사, 수질환경기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262-7274
인터비즈 시스템	외국계IT기업(광주지사) 일반사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07	02-761-8164
하임피자(총정점)	[정규직/이른바이트] 매장관리 남/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223-4166
이러브인테리어	가래치관리및영업/영업지원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1-794-2013
유진방재	소방설비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371-2119
동방종합전기	2008년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08	062-382-2114
길맨의원	[길맨 남성 클리닉] 간호사업무 및 기타서비스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9	062-369-5855
에이스산업	자동차부품(타이어) 제조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10	010-2665-6527
동아에스텍	회계관리직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3000~3200	03/21	061-370-2133
경인조경설계사무소	조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15	062-372-1348

<광주직접이메일 512-6210 제공>